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및 꿈 찾기 사례연구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공수영

(김해 내동초등학교)

《 목 차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3. 용어의 정의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2.2. 자료 수집방법
 - 2.3. 자료 분석방법
3. 연구결과
 - 3.1.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
 - 3.2.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 효과
4. 결론 및 제언
 - 4.1. 결론
 - 4.2. 제언

<Abstract>

Kong, su-young. 2021. 10. 20. Case study of forming identity and finding dream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rough club

activities - Jinro Tantan and Career Basic Education Program us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9, 1-25. This study developed a dream search activity through career club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attending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career education has four major areas. This study aims to help students learn the basics of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exploration after understanding the actual situ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For this purpose, “Jinro Tantan and Career Basic Education Program” was used. Also, to help the emotional part, I read picture books at the same time. Ten people participated in the club activities from May to October. At first, I did not recognize what club activities were doing, but as I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I was able to express what I liked and how I felt. Also, I had tim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job I had and what kind of job I would have when I grew up.

Although the club activity period was not long, I could see that the students' thoughts were growing in the process of finding what they liked, what they were good at little by little, and exploring their career path through experience.

In the future, multicultural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many opportunities to explore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and develop their ability to search for job information. Through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design and plan their own career path. This will become a resource for the upcoming future society. **(Kimhae nae-dong elementary school)**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 Identity, Dream, Career Education

1. 서론

초등학생은 진로발달의 시기로 진로인식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긍정적 자아이해와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학생들은 아직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꿈에 대하여 잘 표현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아 체험활동이나 한국문화 경험도 적은 편이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학습격차가 발생하여 학습부진을 면치 못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어울리기 때문에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이는 다문화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래사회에서도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회현상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들이 전체 17%(49/290)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특별학급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어교실은 최장 2년 동안 한글부터 시작하여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지도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한국어를 처음 말았을 때 1년이나 한국어를 배웠는데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이 엄마를 따라 본국에서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들어왔으며, 2학년에 취학을 한 학생들이다. 현재 4학년이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한국어교실 뿐이고, 집에 가면 본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나머지 학교생활은 눈치로 친구들 따라 겨우 학교생활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는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마침 2020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 진로교육 프로그램

램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자료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 자료집”을 소개받고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용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연구자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로영역 중에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중심으로 꿈 찾기를 해보고자 목표를 정했다. 또한, 이들에게 정서적인 도움과 어휘력 신장을 위하여 그림책 읽기를 병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이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형성 및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본교 다문화학생들의 특징은 어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친구들 사귀기 언어가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제한된 생활을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경험의 과정을 실제 교육 장면에서 관찰한 자료와 활동지,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자아정체성과 꿈을 찾아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고 동아리활동 다문화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다문화학생 유형

다문화학생 유형은 <표 1>과 같다(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표 1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p>※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p>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정체성 형성 및 꿈을 찾아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실천 변화를 탐색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2.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연구대상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중 다문화학생 10명 내외를 선정 기준하며,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절차>

구분	추진계획	연구일정(2021.3~10)							
		3	4	5	6	7	9	10	
계획	다문화 워크숍 참여, 관련 도서 찾아보기	○							
	주제선정, 다문화학생 실태파악	○	○						
	연구의 방향 설정 및 관련선행연구자료 수집	○	○						
	다문화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		○						
실행	다문화 동아리활동 대상자 모집		○						
	동아리활동 대상자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운영		○	○	○	○	○	○	
	동아리활동 중간 보고서 제출				○				
	동아리활동 교내 체험활동 실시				○		○	○	
평가	동아리활동 실행 결과의 정리 및 평가		○	○	○	○	○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제출				○			○	
	반성 및 일반화, 다음년도 계획 수립							○	

2.2. 자료수집 방법

연구자는 다문화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의 연구내용은 질적연구방법으로 실천사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	시기	방법	검사도구	결과 분석
학생	2021. 4월, 10월	질적 검증	관찰, 동아리활동지, 면담, 설문지	교사 메모 기록 분석 활동지 내용 분석 사진자료, 설문지분석
학부모			설문지	설문지 분석

연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격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다문화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도입국학생들에 대한 1박2일의 비대면 워크숍에 참여했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 수강 및 그림책 활용을 위해 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2.3. 자료 분석방법

다문화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은 다문화학생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꿈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즉, 교사메모, 학생들 활동지 및 사진자료, 진로탄탄 프로그램과 도서활용, 설문지 등이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문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로 알아보았다.

3.1.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

3.1.1. 다문화학생 실태 분석 진단

2021년 4월 동아리활동 대상자를 모집하고 설문지와 자기소개 자료를 분석할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미, 흥미 등의 어휘를 모른다. 한부모인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적고 한국어실력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학생 실태분석 진단 >

순	학 년	이름	학생 분석 및 개별진단
1	2	아○툼	외국인가정으로 취미, 흥미,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나 진로(꿈)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함.
2	2	아○	외국인가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규칙을 잘 따르며 꼼꼼하고 성실함.
3	2	로○	외국인가정으로 활달하고 자기 표현을 할 줄 알며, 운동을 좋아함.
4	3	비○	외국인가정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양호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함.
5	4	○나	외국인 가정으로 재혼가정이며,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몰라요, 안해요 라고 대답함.
6	4	은○	국제결혼가정(모 베트남)이며, 한국에서 태어나 의사소통 완벽하고 수업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음.
7	4	○로	외국인가정으로 모(母)랑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간단한 단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집 외에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고, 말이 없는 편임.
8	4	마○아	외국인가정으로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왔지만, 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학습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잘 모름. 러시아어로 번역하면 어느정도 이해함.

9	4	혜○	국제결혼가정이며, 한국에서 출생함. 모(베트남)재혼으로 한국에 재입국한 중도입국학생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가족과 대화를 기피하며 방안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상태임.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함.
10	5	민○	국제결혼가정이며, 필리핀 출생으로, 2020년 8월에 중도입국한 학생이며,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하나 어휘를 부족함. 꿈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음.
11	6	니○타	외국인가정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한 학년 낮은 4학년에 취학하였으며,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말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질문을 하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함.
12	6	띠○	현재 모(베트남)의 재혼으로 중도입국한 학생이며, 한국에 4학년 때 입국함.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하며, 꿈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음. 어휘력은 짧으나 질문에는 대답을 잘함.
13	6	○카	외국인가정으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지만 진로탐색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과 후 활동 경험이 많음. 질문을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나 목표가 없고 의지가 약함.
14	6	○서	국제결혼가정으로, 내성적이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스스로 하기보다는 모의 도움으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 이해와 관련된 진로탐색 기회가 필요함.

3.1.2. 다문화학생, 학부모 설문지 분석

다문화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전 설문지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한국어로 질문한 답변의 해석은 비슷하다. 학부형의 경우 사전 동아리 설문지에서 동아리활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연장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공부를 더 잘한다”거나 “한국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 외에는 무응답이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타문화의 나라에서 생활하여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후 설문지에서는 중도입국 학생 학부모 한

분만 답변을 하였는데, 학생이 동아리활동을 매주 기다리며 좋아한다고 설명해 주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학생의 경우 동아리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후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학생 사후 설문조사>

날 짜	2021년 10월 27일
설문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작성 배부한 것 회수 분석 • 설문을 나누어주어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자가 읽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 모르는 단어는 질문하도록 하였다.
수업자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내용은 4문항인데 학생들에게 배부하면서 “진로”가 무엇인지 “동아리” 무엇인지 질문을 하니 모른다고 한다. • 설문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작성해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해해서 작성해 올 것인지 걱정이 된다. • 내년에도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8명이 응답하였다(1명 졸업, 1명 거부).

3.1.3. 다문화학생의 활동기간 평가

다문화학생들의 활동기간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석현황을 보면 6학년보다 2학년, 4학년, 5학년의 참석이 현저히 높다.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참석률이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이 되고, 학교적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6학년은 면담 결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춘기로 접어든 시기이며, 내성적인 경향이 강하고, 연령차가 있어서 활동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동아리 활동 기간 학생별 평가>

학생 분석 및 개별 진단 (⊙-매우 잘함, ○-잘함, △-노력 요함) ¹⁾							
순	학년	이름	동아리활동 참여율 (⊙,○,△)	활동지 작성 (⊙,○,△)	태도 및 성실성 (⊙,○,△)	한국어 학습 기간	국적
			학생 분석 내용				
1	2	아○름	⊙	△	○	1년 8개월	러 시 아
			동아리활동에 결석을 한 적이 없으며, 성실히 참여하고 말하기, 듣기는 잘하나 활동지를 제출하지 않음.				
2	2	야○	⊙	⊙	⊙	1년 8개월	카자 흐스 탄
			동아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아무지며, 활동지 작성에서 모르는 단어는 질문을 하며 꼼꼼하게 작성함.				
3	2	로○	⊙	○	⊙	1년 8개월	러시 아
			동아리활동에 결석을 하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며 할 달하나, 활동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음.				
4	3	비○	⊙	○	○	2년	우즈 베키 스탄
			한국어를 이해하는 실력이 학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며, 동아리활동에 잘 따라왔으나, 2학기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오지 않음.				
5	4	○나	○	△	○	2년	러 시 아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정해져 있으며, 일상생활 언어는 대충 알아듣기는 하나, 어휘력이 부족하여 활동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2학기에 결석이 잦음.				
6	4	은○	⊙	⊙	⊙	없음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동아리활동에서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활동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흐르는 느낌으로 말을 하여 잘 들어야 함. 성실하게 활동함.				

7	4	○로	⊙	△	△	2년 6개월	우즈 베키 스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엄마와 살고 있어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음. 일상생활에서 단어 몇 개로 대화를 하며, 대체로 옆 친구가 도와주어야 할 수 있음. 동아리 활동 시간 모르는 단어를 찾도록 태블릿을 제공하면, 어느 순간 게임을 하고 있음. 친구는 마○아 뿐이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으로 보임.				
8	4	마○아	⊙	○	○	2년 6개월	러시 아
			한국어로 일상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며,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음. 책 속의 낱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짐.				
9	4	혜○	⊙	⊙	○	2년 6개월	한국 /베 트남
			한국에서 태어나 베트남에서 살다가 중도입국한 학생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책 속의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동아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10	5	민○	⊙	○	○	1년	한국 /핀 리핀
			작년 8월에 중도입국한 학생으로 일상생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태블릿으로 번역하여 활동지를 해결함.				
11	6	니○타	△	△	△	2년	러 시 아
			말이 없고, 한국어 사용 기회가 없어서인지 질문을 하면 “네, 아니오”로 대화하며, 동아리활동 시간에는 듣고 활동지를 대충 메꾸는 정도임, 3번 출석함.				

학생 분석 및 개별 진단 기준		평가
1)	▪ 동아리활동 참여율(출석부 분석-9회이상, 5~8회, 4회이하로 구분)	상-⊙,
	▪ 활동지 작성(활동내용 및 소감을 3가지 이상, 1~2가지, 작성하지 않음)	중-○,
	▪ 태도 및 성실성(출석률, 활동지 작성, 파일 정리, 교사관찰)	하-△

12	6	띠○	△	△	△	2년	베트남/ 한국
			중도입국학생이나 가정학습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해서인지 의사소통 양호함. 학습적인 단어의 이해는 어려워하며, 모르는 것은 설명하면 “알아요”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함. 4번 출석함.				
13	6	○카	○	○	○	2년	우즈베키스탄
			한국어로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동아리활동 단어 이해도 뛰어남. 목소리가 저음이며 목소리가 작고, 탈진한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니 2학기에 다시 나눔. 7번 출석함.				
14	6	○서	△	△	△	없음	한국
			의사소통이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뛰어나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동아리활동에 오면 핸드폰 게임을 주로 함. 4번 출석함.				

3.2.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 효과

3.2.1.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활용 프로그램

다문화학생들의 꿈 찾기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실행한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진행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영역이다. 본교 다문화학생들은 아직 자아정체성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학교적응에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격차를 보이기에 1학기에는 자기이해 영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알아보았다. 2학기에는 직업탐색으로 직업의 종류부터 자신이 미래에 가지고 싶은 꿈을 정하는 과정까지 진행하였다.

<표 7 진로탄탄2) 프로그램을 활용한 활동 내용>

월	기간	활동 내용(1학기)
3	2021.3.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모집 및 동아리 구성 • 결과: 참가 신청자 14명
4	2021.4.26 -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안내(밴드) • 동아리 사전설문지 배부 및 회수
5	202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자기소개(자아탐색), -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2021.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친밀감 놀이 및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기(과일)
6	202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친밀감 놀이 및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기(음식, 물건)
	202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치킨 마스크" 그림책을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감정카드)
	202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서 제출
7	202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나는 내가 좋아 그림책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
	202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돼지책 그림책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
	2021.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진로체험 활동, 콩나물 키우기
9	202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와 함께하는 편백나무 방향제 만들기 - 작품 만들기 - 소감 나누기
	2021.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행복한 청소부(자아탐색, 진로탐색) - 소감 나누기

2) 표에는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 프로그램을 줄여서 진로탄탄으로 사용함.

10	2021.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배우기 - 작품 만들기(진로탐색) - 소감 나누기
	2021.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자연화장품 만들기 - 작품 만들기(진로탐색) - 소감 나누기 •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2021.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예산 내역서 제출 • 참여 학생 만족도 집계 제출

3.2.2. 도서 선정 자료 및 활동 내용

연구자는 1년 동안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이해정도가 낮아 어휘력도 부족하고 한국문화나 학교적응에 미숙하다. 그래서 정서적인 감정표현과 안정감을 주고, 진로교육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였다. 첫 번째 도서로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틀려도 괜찮아”를 선정했다. 책을 읽는데 모두 더듬거리며 읽는데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연구자가 그림책 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설명하고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틀려도 괜찮아”를 이해시키고 틀리면 반복해서 연습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도서는 항상 연구자가 읽으면서 내용을 알려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1학기에는 자아탐색, 2학기에는 직업탐색으로 주제를 잡았다. 또한, 발표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활용하여 정적강화를 시도하였다. 스티커 활용은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표 8 진로탄탄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그림책과 선정 이유>

순	진로영역	도서명	도서 선정이유
1	자기이해	틀러도 괜찮아	자기효능감, 자존감 키우기
2		나는 내가 좋아	자기이해, 긍정적인 생각
3		돼지책	가족, 배려,
4		치킨마스크	자기이해, 긍정적인 사고, 자존감, 교우관계
5		나를 안아 줘	자기이해, 자존감, 긍정적인 생각
6	자기이해, 진로탐색	행복한 청소부	자기이해, 긍정적인 생각, 사랑, 직업탐색
7	자기이해, 진로탐색	나무를 심은 사람	자기이해, 헌신, 공동체, 사랑,

<표 9 진로탄탄 프로그램에서 그림책 활동 내용>

날 짜	6월 23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 “치킨 마스크” 그림책을 읽고 되고 싶은 마스크 찾아보기 - 나의 감정에 대하여 찾아보기(감정카드) • 오늘 알게 된 것이나 배운 것: 화나요. 짜증나요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모름, 없음
수업자의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치킨 마스크”를 각자 먼저 읽어보라고 했다. 책장만 넘기고 있다. 지명을 해서 읽었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 연구자가 읽어주면서 설명을 했다. 다행히 글밥이 많지 않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치킨 마스크의 감정변화를 찾는 것은 무리였다. • 감정카드를 가지고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감정단어를 알려주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 6학년이 없어서인지 아이들의 얼굴들이 편안해 보인다. 교실 인원도 적정하고 발표도 몇 명은 한다. • 활동지에 간단하게 기록하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소감을 적는데도 "없어요", "몰라요"다.

	<p>그나마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거 꼭 해야 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커판에 10개가 나온 학생이 있어 선물로 간식이나 학용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간식을 선택하였다. • 발표를 할 때마다 잘한다고 지지하고 스티커를 주었다. 열심히 하는 친구는 2명 정도이다.
날 짜	9월 29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청소부” 그림책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청소부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나누기 • 글밥이 많아 질문하고 내용 설명하면서 진행하여 활동지 작성을 못함.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발표: 청소부가 대단하다. 활동지 못해요. 힘들어요 등.
수업자의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행복한 청소부의 글밥이 많아서 책 내용 파악하며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활동지 작성을 하지 못했다. • 표지 이야기부터 나누고, 연구자가 읽어주면서 내용파악을 하였다. • 청소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 나누기를 하였다. • 학생들의 이미지에는 청소하는 사람 정도로 기억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해한 듯하다. • 책 내용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2.3. 재구성한 진로탄탄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분석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꿈 찾기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동아리활동 모집 시 설문지에서부터 5월 12일 첫 수업장면의 상황을 보면 연구자가 말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림책 읽기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를 통하여 그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행동이나 태도로 변화를 알 수

있다. 5월 12일 “꿈이 뭐예요” 로 시작한 수업이 2학기 직업의 종류를 공부하고 10월 설문조사에서 “군인, 경찰, 의사, 스텐디스, 디자이너, 화가” 등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하였다.

<표 10 재구성 진로탄탄 프로그램 활동 내용으로 분석>

날 짜	2021.3. - 4.30
활동 내용 및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모집 및 동아리 구성 • 동아리 안내(밴드) • 동아리 사전설문지 배부 및 회수 • 한국어교실에 14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함. • 프로그램 교재 분석
수업자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전교생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 예비원원 10명보다 많이 신청하여 기대가 되었다. • 설문 문항(8)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에게 배부하여 회수하였는데,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는 문항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더 똑똑하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 부모님의 기대가 한국어를 잘하도록 해 달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날 짜	5월 12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자아탐색) -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친밀감 형성) • 오늘 알게 된것이나 배운 것: 없음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모름
수업자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하기” 활동지를 주고 틀에 맞게 칸을 메운 후 소개하기를 하였다. 2명만 발표한다. •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라고 질문하니 “꿈이 뭐예요?”가 뭐냐고 되묻는다. 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미래에 가고 싶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 아무도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을 적고 날리기를 하였다. 버리고 싶은 것의 의미를 모른다. 목소리를 높여 설명을 했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보다. 눈만 멀뭇멀 뚫한다. • 활동 후 소감을 적는데 “없어요”와 “몰라요”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 내적동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외적동기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고 스티커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 스티커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주어진 과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적보상 장치이다.(자율성, 소속, 인정의 욕구, 관계 형성을 고려함.) • 지금까지 “생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점 어휘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 의사소통을 위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다음 시간 수업에서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p>날 짜</p>	<p>10월 13일</p>
<p>학생 활동지 기록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카드로 놀이하기 -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커리어넷에서 찾아보기 • 직업 카드로 내가 선택한 직업 정리하기 • 태블릿PC로 커리어넷 검색하여 주니어 직업사전에서 자신이 찾은 직업 자세하게 찾아보기
<p>수업자 성찰과 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카드와 태블릿PC를 나누어 주었다. • 직업카드에서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활동지에 적었다. • 태블릿으로 커리어넷에서 자신이 찾은 직업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 다문화학생들이라 로그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직업사전에서 직업만 검색하여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함(월급, 진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을 찾아서 읽는데도 의미를 몰라 질문을 하여 대답을 해 주어도 잘 못 알아듣고 하여 시간이 걸리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 직업의 종류를 한 두 가지 적는 것에서 마무리를 하였다. • 커리어넷에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하여 미래의 직업과 동영상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

3.2.4.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분석

다문화학생들의 자아탐색과 진로탐색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표 11 진로탄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내용 분석>

날 짜	7월 29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나물 시루 꾸미기 및 키우기 - 소감 발표하기 • 콩나물이 잘 자라도록 싶은 말 (기도문)을 써 주세요: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행복하게 잘 자라! 아프지 말고 자라라. 나랑 함께 살자. • 오늘 동아리 느낌이나 생각: 재미있음. 즐거움.
수업자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 먹는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 콩나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물을 줄 때마다 사랑하는 말을 해 주도록 바라는 글을 만들어 시루에 표현하도록 꾸미기를 했다. • 콩을 불려서 시루에 넣어주고 매일 5번씩 물을 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고, 콩나물이 자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함. •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음. 처음에는 싹이 트는 과정까지는 보았으나 수확한 경우는 없었다. • 활동을 좋아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스티커판에 10개가 나온 학생이 있어 선물로 모두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
날 짜	10월 20일
학생 활동지 기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 배우기 - 소감 발표하기 • 마을 교사 소개 후 직업의 종류와 연결하여 이야기 나눔 • 소감 나누기: 좋아요. 재미있어요. 등
수업자 성찰과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을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학생들이 본인의 것을 만들어서 그런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느꼈다. • 강사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순하고 잘 따라온다고 하였으며, 동아리활동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 들었다. • 남은 예산으로 다른 체험활동을 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좋아요”, “재미있어요”라고 하며 좋아한다.

3.2.5. 활동지를 통한 프로그램 분석

<표 12 진로탄탄 활동지를 통한 프로그램 분석>

날짜	5월 12일	6월 9일	7월 21일
활동명	나 소개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감정 찾기
사진			
활동 상황	<p>1학기 수업은 주제를 자아탐색으로 정했다. 5월 12일 자기 소개하기 활동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꿈이 뭐예요?, 담임이 뭐예요? 등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휘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 이름을 모름.</p> <p>6월 9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다. 활동방법을 소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친구에게 받아서 붙이기 놀이다. 실제 접하는 그림들이 많아서 활기찬 수업이 됨.</p>		

	<p>7월 21일 감정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기로 함. 즐겁다, 화나다. 행복하다. 신나다 등의 몇 가지 단어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서툴고 어려워함.</p> <p>2학기부터는 직업탐색에 대하여 알아봄. 9월 8일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직업카드를 활용하였지만,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함. 10월 20일, 27일은 체험활동으로 캘리그래피 배우기와 화장품 만들기를 함.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감이 높았음. “선생님, 이런 거 좋아요”, “다음에는 뭐해요” 등으로 다음 시간 배울 것에 대하여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표현함.</p>
분 석	<p>활동지에 기록하는 자체를 힘들어한다. 어휘력이 부족하여 말하는 것이 힘든데, 글로 표현하라고 하니 더 힘들어해서 처음에는 문항을 활동 내용 및 소감으로 구분하였다가 전체적으로 한 칸만 만들어 적고 싶은 것을 적도록 함. 점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휘력을 익히고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접하는 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시간으로 듣고 말하는 것을 익히는 것은 무리였음.</p> <p>2학기 직업탐색으로 대부분 체험활동을 진행함. 강사모집과 예산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p>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진로탄탄 및 진로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그림책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들에게 꿈 찾기 동아리 활동을 사례분석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 활동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생태체계적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동화책 읽기를 접목할 때에는 이해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학년군별로 구성하는 것과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방법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꿈 찾기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한 결과 수업자의 성찰이나 학생들의 활동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동아리 활동을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몰라요” 라는 대답만 하던 학생들이 직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의사,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청소부” 의 대답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리활동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 대신 질문을 하였는데, “만들거나 그리기 하는거요” 라고 말을 한다. 그림책이나 활동지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보다 실제 만들고 꾸미기 활동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셋째, 미래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한 사람 말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되면” 이 무엇인지를 물어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활동이 끝날 무렵에는 의사, 경찰관, 군인, 스튜어디스 등을 말한다. 아직도 꿈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꿈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내년에도 동아리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한 명은 졸업을 해서이고, 한 명은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게임을 하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 학생이다.

다섯째, “진로탄탄 및 기초 진로교육 프로그램” 은 진로역량을 함양하는데 선택적으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자아탐색 부분에서는 해보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등을 찾는 자료가 풍부하였고, 진로탐색 부분에서는 직업의 종류나 자료를 찾는 것 등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문화학생들에게 진로탄탄 프로그램과 그림책 활용 동아리활동은 다문화학생들에게 느리지만 천천히 자아정체성 및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났기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다문화학생들의 진로인식단계에서는 놀이교육이나 진로체

험 등의 활동이 접목되어야 효과가 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4.2. 제언

다문화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이 서툰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학습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에게는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부적응을 면치 못한다.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일찍 직장을 가서, 학교에 늦게 등교하는 학생,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업시간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학생들이 각 반에 몇 명씩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을 추천한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면,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 나아가는 진로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본 동아리 활동은 특정 지역의 활동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1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15). 2015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해설서.
- 그림책 사랑교사모임(2019). 그림책 학급 운영, 출판사;교육과 실천 출판사.
- 김희수(2020). 드림스타! 언택트 진로콘서트-드림메이커 STARBOOKS 프로젝트로 나만의 꿈 캐릭터 찾기-

박경숙 외(2019). 수업, 슬로리딩과 함께, 학교도서관 저널
이태숙(2019). 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감 수업, 학교 도서관 저널.
케어넷(<http://www.caree.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진로탄탄 및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활용 자료 워크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중도입국청소년(초등) 진로기초교육
프로그램 워크북(교사용, 학생용).

필자 소개

성 명 : 공수영
소 속 : 김해 내동초등학교
주 소 : 김해시 평전로 151번길, 내동 [우편번호]50892
전화번호 : 055-332-5602
전자우편 : kong200078@hanmail.net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